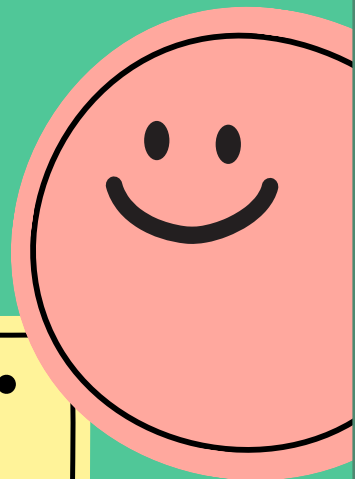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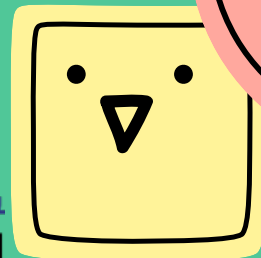


제3회 서초구 어린이 특후갑 공모전

서초 어린이, 평등을 읽다



수상작품집



공모개요

접수기간 2022. 7. 18.(월)~9. 5.(월)

신청대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린이 (8세~13세)

신청방법 선정도서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읽고
신청서와 함께 독후감 제출

시상내역 총 15명

구분	인원		내용
최우수상	감상문	새싹 1명 열매 1명	상장 및 20만원 상당 부상
	감상화	새싹 1명 열매 1명	
우수상	감상문	새싹 1명 열매 1명	상장 및 10만원 상당 부상
	감상화	새싹 1명 열매 1명	
장려상	감상문	새싹 2명 열매 2명	상장 및 3만원 상당 부상
	감상화	새싹 2명 열매 1명	

선정도서



눈만 뜨면 눈 걱정
(줄리아 핀리 모스카)



몬스터 차일드
(이재문)



홍계월전
(백승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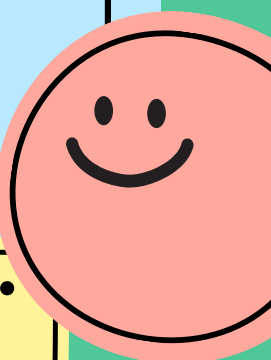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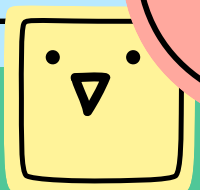
평등한 나라
(요안나 올레흐)



오늘부터 배프! 베프!
(지안)



내 머리 만지지 마세요!
(샤리 밀러)



제3회 서초구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

서초 어린이, 평등을 읽다

감상문

수상자

새싹부문

수상자	도서	훈격
최유라 (언남초 2학년)	내 머리 만지지 마세요	최우수상
이유건 (잠원초 3학년)	눈만 뜨면 눈 걱정	우수상
양소울 (원촌초 2학년)	홍계월전	장려상
김규나 (잠원초 3학년)	몬스터 차일드	장려상

열매부문

수상자	도서	훈격
이지민 (우솔초 5학년)	눈만 뜨면 눈 걱정	최우수상
이서율 (서이초 5년)	몬스터 차일드	우수상
이다율 (원명초 4학년)	눈만 뜨면 눈 걱정	장려상
김보민 (원촌초 5학년)	몬스터 차일드	장려상

'내 머리 만지지 마세요'를 읽고

최유라

내 머리 만지지 마세요!를 읽고
내가 아리였다면 어떤기분이였을까?를 생각해보았고,
만약에 아리가 내 친구였다면 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생각했다.
내 마음이 불편한걸 말해야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아리야

내가 아리였다면 난 어떤 기분이였을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만지려고 할때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눈물도
났을거 같고,
아리처럼 숲속에도 숨고, 바닷속에 숨고,정글, 용이 사는 높은 성탑, 우
주까지 가도 온통 내 머리에 관심을 가지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사람
들이 없는 곳에 살고 싶었을거 같아.

그런데 내 머리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 불편한걸 말하지 않
고, 숨으려고만 했으니 사람들이 몰랐던거 같아. 머리를 만질때마다 제
가 많이 불편해요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걸 그랬어!

아리야!

만약 아리가 내 친구였다면 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1학년 2반때 선생님이 친구의 몸을 만지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
셨기 때문에 너에게 머리를 만져봐도 되겠니?하고 물어 보았을거 같아.
그리고 너의 머리가 너무 예쁘고 풍성하니깐 아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
고 만지고 싶을때도 있을테지만 참아볼게.

아리야

이제는 사람들이 아리의 머리를 만지려고 하면 불편하고 싫다고 말해야
해.

너무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거절하는거야.
“ 내 머리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도 아리의 의견을 들어 줄거야!

아리야! 난 최유라야. 나도 너처럼 불편한 일이 생기면 피하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니깐 그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께!

아리야 널 만나서 행복한 시간이였어.

'눈만 뜨면 눈 걱정'을 읽고

이유건

책 제목은 '눈만 뜨면 눈 걱정'이다, 나는 요즘 눈만 뜨면 놀 걱정? 먹을 걱정?을 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난 내일부터는 눈만 뜨면 부지런해지고 싶은 걱정이 시작될 것이다.

주인공 패트리샤는 가난한 흑인 마을에 여자 아이로 태어난다. 어릴 적 장난감 실험 도구를 가지고 놀다가 안과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 패트리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패트리샤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다.

패트리샤는 수많은 직업 중에서 왜 하필 안과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 패트리샤는 모든 사람의 눈은 똑같이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이 말은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사람들은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맞는 말이지만 패트리샤는 마음으로도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패트리샤는 자신이 흑인이고 여자라서 차별을 받았다. 책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힘든 일을 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패트리샤는 나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평등이 동기가 되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 건 아닐까?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나 또한 생각한다.

책의 내용 중 패트리샤가 열차를 타고 매일 학교에 오가는 장면이 있다. 내가 만약 패트리샤였다면 어땠을까? 나는 과연 패트리샤처럼 3년 동안 힘들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아마 패트리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금 3학년이라서 꿈이 해마다 바뀐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확실한 목표가 생긴다면 패트리샤만큼이나 강력한 끈기가 생길 것도 같다.

이 책은 그림책이다. 주로 어린이가 많이 읽지만 내 생각에는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인 것 같다. 어른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다르게 생각한다. 또 '어린 왕자'에서 읽었듯 어른들은 숫자 세기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눈만 뜨면 눈 걱정'만 했던 패트리샤의 어린이 시절을 상상해본다. 어느새 내 또래가 된 귀엽고 씩씩한 패트리샤가 옆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왠지 나지막하게 속삭여진다. '패트리샤 나도 뭐든지 해내고 싶어. 너처럼 꿈을 향해 노력할 거야! 내일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꼭 실천하는 내 모습을 지켜봐 주렴.'

나도 홍계월처럼 되고 싶다

양소울

<홍계월전>책은 여자가 훌륭한 장군이 되는 이야기이다. 계월은 어려서부터 글공부와 무예가 남자인 보국보다 뛰어났다. 계월은 이름을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뜻인 평국으로 바꿨다. 평국은 자기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대원수가 되었고 여러 차례 보국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혼인을 한 뒤에도 명나라와 명나라의 황제를 살려주었다.

<홍계월전>책을 읽고 나는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다. 평등은 인간의 권리와 가치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 책은 여자도 남자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람은 나이와 성별의 차이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걸 알려준다. 여자도 남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남자 또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나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면 그 재능이 사라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미래의 훌륭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홍계월전>책을 읽고 여자도 얼마든지 뛰어난 능력을 지닐 수 있고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공을 차고 노는 것이 좋아서 얼마 전 방과후 수업으로 축구를 시작했다.

대부분이 남자아이들이지만 <홍계월전>에서 배운 양성평등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열심히 해서 축구 실력을 쑥쑥 키우고 싶다.

'몬스터 차일드'를 읽고

김규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평등이란 누구든지 존중 받고 사랑 받는 것. 누구든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는 가끔 평등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내가 오늘 읽은 책 '몬스터 차일드'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다. 이 책은 하늬라는 아이가 남들과 다른 '몬스터 차일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따돌림을 받다가 시골 학교로 전학 오면서 연우와 훈련소 소장을 만나 몬스터 차일드는 자신의 모습이고, 또 다른 나인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늬가 처음에 있었던 그 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가엾은 몬스터 차일드를 내쫓으려 했지만, 연우와 훈련소 소장은 하늬에게 몬스터 차일드는 남들과 같은 사람이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연우와 훈련소 소장이 하늬를 도와 용기를 주고 믿어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 멋있었다. 이 책에서 하늬가 자신이 몬스터 차일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일 하늬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면, 나도 그들처럼 몬스터 차일드를 미워했을까?

나도 그들의 변이된 이상한 외모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을 무서워하고 거리를 두었겠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좋고 친근한 점을 찾아서 몬스터 차일드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늬의 편은 아니지만 몇몇이라도 옆에서 믿어 준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날 믿어주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마치 하늬처럼.

나는 이 책을 통해 평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몬스터 차일드처럼 외모가 이상하거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넌 너 자체로 특별한 존재야! 용기를 내! 파이팅!" 이라고. 이 책 속의 몬스터 차일드 같이 차별받는 친구들이 내 응원의 목소리를 들어 사람들로 부터 받은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림들도 인상깊었는데, 몬스터차일드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이된 모습을 들켰을 때 느꼈던 난처함과 조마조마함이 생생하게 잘 느껴지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내용이 더 풍부하게 이해되었다.

같은 하늘 아래

이지민

이야기에서 주인공 패트리샤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단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이 어떻든.” 당시 패트리샤가 살던 시기에는 대부분 남자만 의사가 됐다.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던 패트리샤는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의사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고등학교들은 부자인 백인 학생만 받아주었다. 그래도 패트리샤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먼 거리를 열차를 타고 열심히 다녔다. 그리고 4년 과정을 3년 안에 끝내 버렸다. 노력 덕분에 패트리샤는 의과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 거기서도 차별은 멈추지 않았다. 반에는 대부분 남학생으로 차 있었다. 여학생은 앞자리에 앉지도 못했다. 이런 부당함에도 패트리샤는 곳곳이 자신이 할 일을 계속했다.

패트리샤는 안과 수련 공부도 시작하며, 직접 병원 환자들을 대하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배웠다. 그중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흑인 환자의 수는 백인 환자의 수의 두배였다. 이 사실을 발견한 패트리샤는 생각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어. 누구에게나 눈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새로운 목표를 가진 패트리샤는 곧 미국 서부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고는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았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샤는 지식과 기술을 갈고 닦아 안과 수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패트리샤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이 많은 적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눈 건강이 최고! 우리 모두의 권리!”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난 생각으로 차 있었다. 사회는 예전부터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여성은 투표권도 없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부당한 대우를 어디에서나 받고 있다.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 하지만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된다.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성차별, 인종차별, 직업차별, 장애인차별 등 셀 수 없이 많은 차별을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나서야 한다. 앞으로 뛰어나가야 할 필요는 없다. 조심히, 천천히 한 발짝씩 나서야 한다. 내가 만약 패트리샤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고마워. 한 발짝 나서줘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꿔줘서.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보여줘서.”

패트리샤는 수많은 일을 해내도 박수를 바라지 않았다. 달라진 세상을 바꿨다. 나도 패트리샤와 생각이 같아졌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품어 있는 작은 편견이 하나씩 있다.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편견 말이다.

하루만이라도, 잠시동안이라도, 그 작은 편견을 버리면 더 나은 세상을 마주 볼 수 있다. 나도 그 편견을 다시 품기도 한다.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면 가끔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옳지 않다는 점을 바로 인지할 수 있으면 편견도 바로 버릴 수 있다. 이 편견을 아예 버리는 게 우리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 같은 하늘 아래서 태어났다. 그리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 선 우리는 다 꿈꾼다. 평화로운 세상을. 편견 없는 세상을. 눈치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건 다 꿈같은 얘기지만,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혐오보단 배려, 차별보단 평등

이서율

『몬스터차일드』속 오하늬와 하늬의 동생 산들이는 돌연변이종양 증후군, MC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변이되어 모습이 괴물처럼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몬스터차일드라고 부르며 피합니다. 하늬의 가족들은 시골의 한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자신들이 앓고 있는 증후군을 숨기고 싶어했죠. 거기서 하늬는 강연우는 아이를 만납니다. 알고보니 연우도 하늬와 같은 MCS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늬는 연우가 의아했습니다. 계속 변이되는데도 약을 먹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하늬와 산들이는 MCS자립 훈련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의 소장님은 MCS가 또 다른 나 일뿐이지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습이 달라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하늬는 도저히 이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MCS가 끔찍한 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하늬는 또 다른 자신, 변해버린 자신과 친구가 되어 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은 MCS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괴물 취급합니다. 이 건 책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어른들은 종종 어린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어른들이 어린이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날 인터넷 방송에서 여러 스트리머들이 ‘잼민이’, ‘급식충’ 등 어린이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주린이’, ‘골린이’처럼 무언가를 처음 시작해 잘 못하는 사람을 어린이에 비유하는 표현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말 속에는 어린이를 항상 서툴고, 약한 존재로 여기며 무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별 생각없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인해 어린이에 대한 나쁜 인식이 퍼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이 외에도 장애가 있어서, 국적이나 피부색이 달라서, 성별이 달라서 등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 받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도 존엄성이 있기에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학교 사회 시간에 모두들 헌법을 배웁니다. 거기에 적힌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왜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까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해주면 어떨까요?

『몬스터차일드』를 읽고,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차별과 혐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차별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눈만 뜨면 눈 걱정'을 읽고

이다을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시력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안경을 쓰면 운동할 때 걸리적거리고 요즘엔 코로나로 마스크까지 꺼야 해서 안경에 김이 서려 더욱 불편하다. 그런데 밤에 드림 렌즈를 끼고 자면 다음 날에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시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나는 안경을 쓰는 대신 드림 렌즈를 낀다. 그 덕분에 내 시력은 많이 회복되었다.

나처럼 시력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불편한데 시각 장애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텔레비전에서 시각 장애인 판사가 나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점자책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을 해 보니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이러한 시각 장애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명 치료법을 개발한 의사가 '눈만 뜨면 눈 걱정'에 나오는 패트리샤 배스 박사다. 패트리샤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레이저 치료법을 익히고 더 나아가 레이저 바늘을 개발하기까지 했다.

패트리샤 배스가 자랐던 때에는 차별이 무척 심했다고 한다. 패트리샤는 남녀 차별에다 흑인 차별까지 겪었다.

주변 고등학교는 돈 많은 백인 학생만 받아 주어서 패트리샤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먼 고등학교까지 열차를 타고 다녔다. 그뿐이 아니다. 의과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여학생은 앞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불공평한 규칙까지 있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패트리샤는 그 모든 차별을 이겨내고 세계 최초의 여성 안과 의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의대 교수를 하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 미국실명예방학회까지 세웠다.

나도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패트리샤 배스 박사의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이 많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그것이다. 나는 원래 목소리가 큰 편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학급 회장 선거에 나가 연설을 해서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내가 용기를 낸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패트리샤처럼 남을 돕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겠다.

'몬스터 차일드'를 읽고

김보민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몬스터 하나씩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몬스터가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나는 친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생에게만 나타나는 괴물이 있다. 이 괴물은 친구와 있을 때에는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나타나지 않지만 동생 앞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친구가 나에게 화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친구를 배려하지만, 동생이 짜증나게 할 때에는 화를 낸다.

이 책은 하늬가 처음에는 자신의 변이한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두려워했는데, 변이된 모습에 익숙해지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MCS 환자들의 변이된 모습 즉, 손톱이 날카로워지고 털이 나는 모습 때문에 괴물처럼 여겼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는 또 다른 나'로 생각하는 친구인 연우와 함께 지내며 하늬도 MCS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하늬는 자신의 병을 숨기려고 애쓰며 7번에 걸쳐 전학을 다녔다. 그러다가 하늬와 동생 산돌이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시골에 있는 학교에는 놀랍게도 또다른 MCS 환자가 있었다. 그 친구는 연우였는데, 하늬가 다니게 된 훈련소의 소장님이 바로 연우의 아빠였다.

다른 사람들이 MCS들을 피하고 싫어했지만, 연우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MCS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하늬는 그런 연우와 같이 놀며 점점 두려움이 사라졌다.

또, 훈련소 소장님께서 “변이한 모습이 너를 지켜주는 또 다 다른 너야.”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셨다. 연우에게는 입양한 동생 승아가 있었는데, 승아는 사람들의 집에 나무를 뽑아서 던지거나 송아지를 훔치는 등의 피해를 끼친 범인이었다. 원래 승아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혼자 생활했는데, 산돌이와 지내며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 후, 승아가 벌인 사건들로 연우, 승아, 소장님이 경찰서에 잡혀 가자, 하늬는 변이를 한 채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서 연우, 승아, 소장님을 구하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연우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모습 그 대로를 인정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MCS를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만 연우는 오히려 MCS를 통해 원래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을 강하게 해주는 병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하늬에게 연우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연우를 통해 두려움과 편견을 없애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대상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볼어 살아간다면 오해나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각자 다른 장점이 만나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무를 잘 타고 올라가는 사람과 농사를 잘 하는 사람이 만나면 능력이 합쳐져서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도 쉽게 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3회 서초구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

서초 어린이, 평등을 읽다

감상화

수상자

새싹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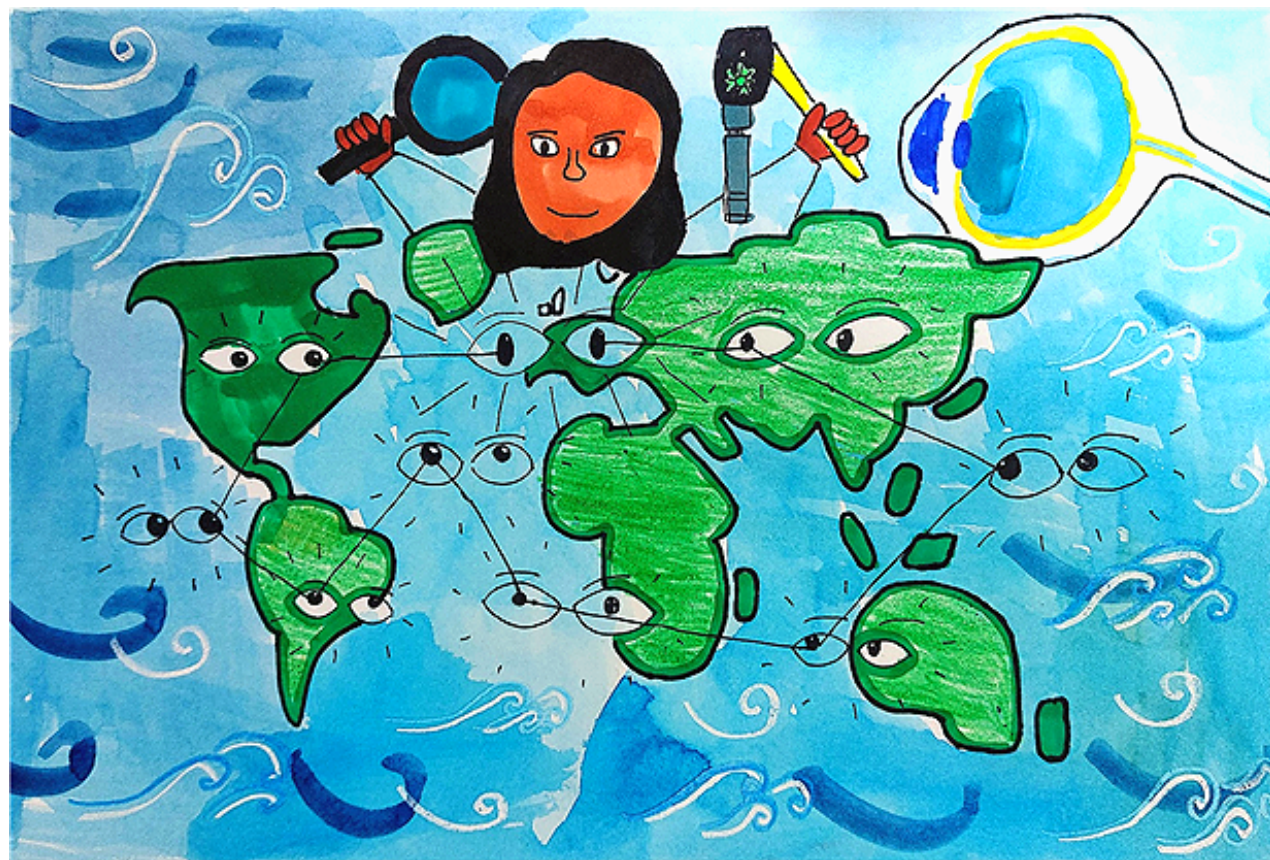
수상자	도서	훈격
이재혁 (계성초 3학년)	눈만 뜨면 눈 걱정	최우수상
조우찬 (신동초 3학년)	몬스터 차일드	우수상
유주하 (반원초 2학년)	눈만 뜨면 눈 걱정	장려상
김태은 (서원초 1학년)	눈만 뜨면 눈 걱정	장려상

열매부문

수상자	도서	훈격
서현우 (계성초 5학년)	눈만 뜨면 눈 걱정	최우수상
이재훈 (계성초 5년)	눈만 뜨면 눈 걱정	우수상
김리원 (잠원초 4학년)	몬스터 차일드	장려상

'눈만 뜨면 눈 걱정'을 읽고

이재혁



위대한 인물인 패트리샤를 보고 느낀 점을 그림에 담고 싶었어요.
패트리샤 학교에는 남학생이 많았고, 자신에게 불공평한 규칙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패트리샤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불공평한 어려움에도 패트리샤가 열심히 노력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계지도와 그 위에 눈을 그려냈고, 패트리샤가 세계 사람들의 눈을 치료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눈은 모두 연결해서 표현했는데, 주사 바늘로 연결해 치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 똑같다

조우찬



내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책이어서 3번이나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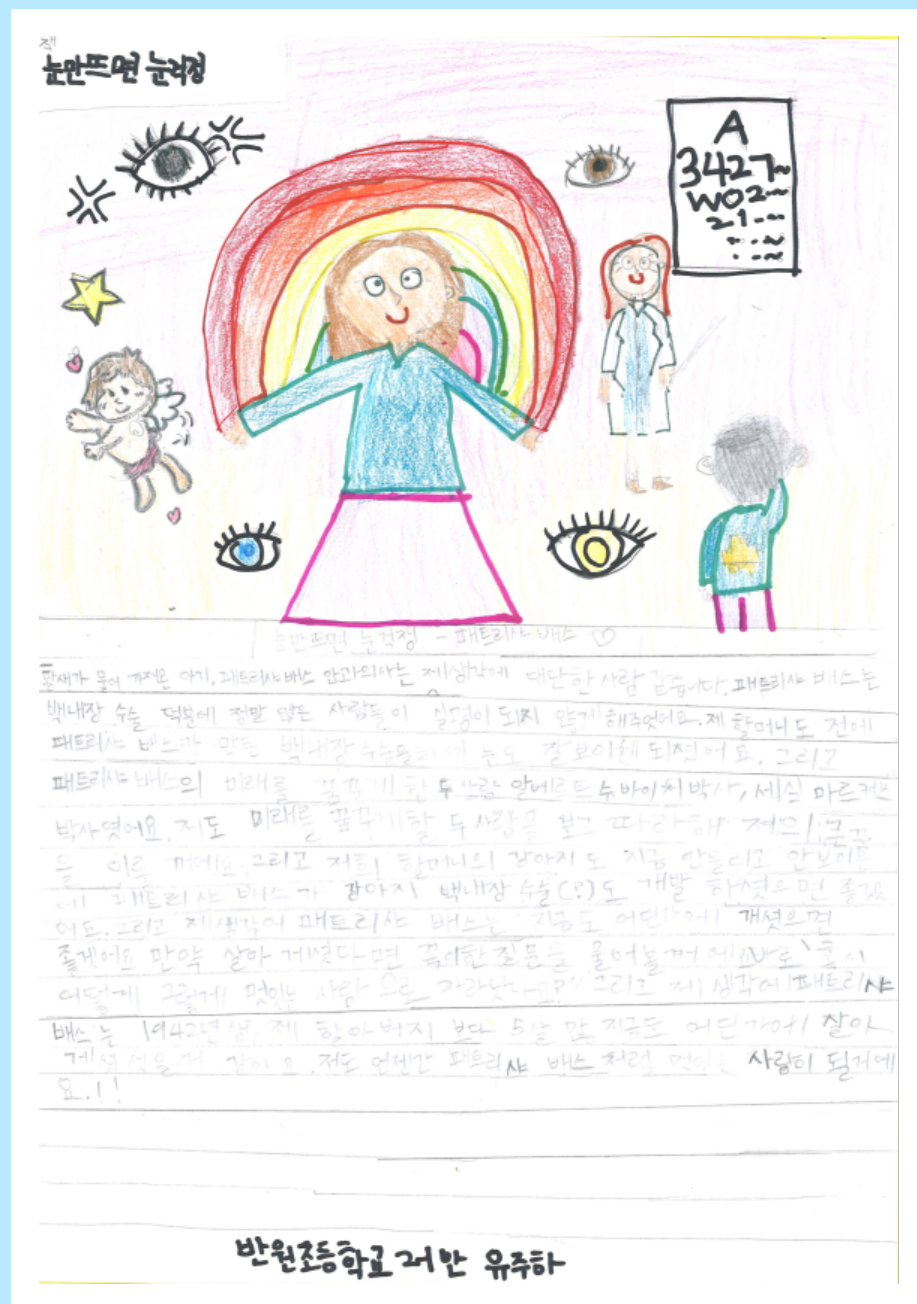
주인공이 너무 용감해서 주인공을 그리고 싶었다.
책에 나오는 그림 중에 주인공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 보여서 내 머릿
속에 오래 남았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내가 친구들과 다르면 '이상한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 친구와 똑같아지려고 친구를 위해서 같이 바이러스를 걸린 것이 너무
용감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주인공은 너무 용감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걸려 늑대가 되어 자유롭게 뛰어 노는 것도 기억에 남
았다. 나도 노는 것을 좋아한다. '몬스터 차일드'에 나오는 친구들과 나
도 신나게 놀고 싶다. 놀고 싶은 것이 나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다.

'눈만 뜨면 눈 걱정'을 읽고

유주하



황새가 물어 가져온 아기, 패트리샤 배스 안과의사는 제 생각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패트리샤 배스는 백내장 수술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명이 되지 않게 해주었어요. 제 할머니도 전에 패트리샤 배스가 만든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눈도 잘 보이게 되셨어요. 그리고 패트리샤 배스의 미래를 꿈 꾸게 한 두 사람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세실 마르테스 박사였어요. 저도 미래를 꿈 꾸게 할 두 사람을 보고 따라해 저의 큰 꿈을 이룰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강아지도 지금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패트리샤 배스가 강아지 백내장 수술도 개발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패트리샤 배스는 지금도 어딘가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꼭 이 질문을 물어볼거예요.

"혹시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사람으로 자라났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 패트리샤 배스는 1942년생, 제 할아버지보다 5살 많아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계셨을 거 같아요. 저도 언젠가 패트리샤 배스처럼 맛있는 사람이 될거예요!

외할머니를 치료한 패트리샤

김태은



저는 '눈만 뜨면 눈 걱정'이라는 책을 읽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 책은 안과 의사 패트리샤 배스에대한 이야기였는데 저희 외할머니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안대를 한 모습을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바늘을 만든 패트리샤 선생님이 머리가 보글보글한 우리 외할머니를 치료해 주는 상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패트리샤는 집에서 먼 고등학교까지 힘들게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패트리샤처럼 저도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눈 속 반짝이는 패트리샤

서현우



당시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상황에도 패트리샤는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며 꿈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여자는 앞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불공평한 규칙이 있었지만, 패트리샤를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패트리샤는 안과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 주는 멋진 전문가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패트리샤가 뒤에 앉고 남학생들만 앞에 앉아있는 장면을 그렸고,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패트리샤를 그려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며 꿈을 위해 노력한 패트리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눈만 뜨면 눈 걱정'을 읽고

이재훈



패트리샤는 호기심 그리고 재미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실험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으로 패트리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림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은 아래부터 3단계로 표현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해 실험하는 패트리샤의 어릴 때 모습을 1단계에 그렸고, 실험하고 연구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패트리샤의 모습을 2단계에 그려보았습니다. 마지막 맨 윗부분인 3단계는 전문가가 되어 레이저 치료제를 개발한 패트리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불공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호기심 그리고 재미로 시작해 자신의 목표를 이룬 패트리샤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루어 내고 싶습니다.

MCS, 자유를 누리다

김리원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하늬, 연우, 산들, 승아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과 진심으로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질병 때문에 차별받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상화에 MCS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하늬, 연우, 산들, 승아가 내 안의 또 다른 나와 친해져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변이했을 때 좋아하는 나무 타기 등을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고, 현대 사회에서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편견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늬처럼 조금 위축 되어있는 친구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담아보았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을 그릴 때 연우가 했던 말, “네 눈동자는 초록색이야. 꼭 눈 위에 떨어진 푸른 나뭇잎 같아”가 생각나서 나도 한번 변이해서 하늬, 연우, 산들, 승아와 연우의 아지트에서 함께 뛰어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부분에서 중학교에 간 하늬가 이제는 더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결말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회에서도 강규철 소장님처럼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3회 서초구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

발행 2022년 10월 31일

기획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
seochoequality.org



**참여해준 모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